

[illegible]

지난주 현금 총액	32,248,000 원	지난주 지출 총액	21,898,704 원
현금 총액 누계	1,081,504,837 원	지난주 지출 누계	1,035,123,265 원
지 지난 주 잔액	36,032,276 원	지 난 주 잔 액	46,381,572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순번	이름	주소	신호번호	인도자	등록일	순번	이름	주소	신호번호	인도자	등록일
6	태오	상암동	62049신호	김정희	5월 28일	17	정오	상암동	40691신호	김소영	5월 31일
7	정민	상암동	47001신호	김정희	5월 28일	18	정민	상암동	40691신호	김소영	5월 31일
8	정교	상암동	47001신호	▲▲▲	3월 1일	19	이미	상암동	40691신호	▲▲▲	5월 17일
9	정교	상암동	47001신호	▲▲▲	3월 1일	20	조혜	상암동	40691신호	▲▲▲	5월 17일
10	이진	상암동	47001신호	▲▲▲	3월 1일	21	열은	송도	56961신호	김혜순	5월 24일
11	김이형	상암동	61981신호	▲▲▲	3월 2일	22	순지	송도	56981신호	김혜순	5월 24일
12	김이형	상암동	61981신호	▲▲▲	3월 8일	23	홍호	송도	56981신호	▲▲▲	5월 31일
13	김이형	상암동	61981신호	▲▲▲	3월 8일	24	정민	상암동	40691신호	▲▲▲	5월 31일
14	이윤	상암동	47001신호	▲▲▲	4월 19일	25	김지	상암동	40691신호	▲▲▲	6월 21일
15	정영	상암동	40691신호	▲▲▲	4월 26일	26	민선	상암동	40691신호	▲▲▲	7월 12일
16	박인	상암동	40691신호	▲▲▲	4월 26일	27	김선	상암동	40691신호	▲▲▲	7월 12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선교회 (4) Local Mission	
상주교회 (주용문)	
시내장로교회 (최장관)	
예담교회 (조원혁)	
주안교회 (엄영섭)	
해외선교회 (3) overseas Mission	
대만 (김성문/조숙순)	
키르기즈스탄 (정치훈)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영범)	
기원선교회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총회북한선교회	
나시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록	

구 분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 계	2	14	6	1	1

현황	
난주 지출 총액	21,898,704 원
난주 지출 누계	1,035,123,265 원
난 주 잔 액	46,381,572원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① **『교회학교위원회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 유년부**

 - 주제: 다윗처럼
 - 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한한 어린이

■ **유치부**

 - 일차:
 - 7월 24(금) 오후 4시 ~ 7시 30분
 - 7월 25(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7월 26(주일) 오후 10시 30분 ~ 11시 30분
 - 유치부 장소: 삼양동교회 3층 유치부예배실
(영화관별: 매곡사삼 삼양월드컵경기장점)

■ **유년부**

 - 일차:
 - 7월 24(금) 오후 2시30분
 - 7월 25(토) 오전 10시
 - 7월 26(주일) 오전 10시30분
 - 유년부 장소: 삼양동교회 5층
(영화관별: 매곡사삼 삼양월드컵경기장점)

2. **2026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원 안내**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귀한 은혜의 사귀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 ①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원헌금] 헌금 봉투를 사용
 - ② 온라인 헌금시 지정으로 '000여름후원' 또는 '000교회학교'로 표기

3. **2026 태권 차림마이 선고보고**
SPFRNG 청년공동체의 '태권 차림마이 선고 아웃리치' 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태권 헌지에서 행한 선고사역의 보고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차: 7월 26(일) 주일 오후매체(14:30)

4. **마더와이즈 New Season**
말씀으로 기쁨을 채우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마더와이즈 모임이 시작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내 열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길에 있습니다. 육아와 양상에 영적 패마들을 느끼는 모든 어머니를 환영합니다.

 - 화요일: 8/25~10/24매주 화요일 10시(30분)
8주간 과정: 지혜, 자유, 회복
 - 토요일: 8/29~10/2매주 토요일 10시
8주간 과정: 지혜
 - 문의 및 신청: 한하나목사

5. **답임독서 동정**

 - 7월 23(목): 4사택학원 법안사무국
 - ~ 7월 25(토): 안식집

교회 청초봉사자 (각 선교회)	7월 25일	남선교회(658) 여선교회(658)	8월 1일	남선교회(694) 여선교회(691)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2부 안내위임]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산순				
[3부 안내위임] (1층) 김광동 조철심 (2층) 이상애 (본당) 소경선 안지연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초 조선휘				
주최/안내 봉사 조정환		교회차량운행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만 강효진		

오카이 청크게자 율해(새마으크크) 세크즈(사안도크히)

심일조헌금 0436-0900-0334-1
일반헌금 0436-0900-1381-1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요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2부 전도예배(오전9:00)		3부 순례예배(오전10:30)	
1st Service (Meditation)		2nd Service (Mission)		3rd Service (Family)	
인도 & 말씀: 김용태 목사		인도: 유덕선 목사 말씀: 조요한 목사		인도: 박희하, 김경선 목사 말씀: 조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찬 양 단	아바미 찬양단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 도 자 Prayer Leader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갈 이
✦ 인도 자 President	찬 송 Hymn	✦ 찬 송 찬송가 25장 (민수기 29:1-2, 2:2)	✦ 찬송가 25장 (민수기 29:1-2, 2:2)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중용만장조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 양 Choir Song	골도모 (창세기 4:9 장대)
찬 송 Hymn	찬송가 25장 민수기 29:1-2, 2:2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49편 (시편 108편)	성경본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4:35-41
성경본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6:7-13	성경본독 Scripture Reading	전경만장조 (창세기 4:9 장대)	말 씀 Message	복종 가운데 주를 믿는 것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나를 통하여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갈 이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말 씀 Message	제자의 능력	찬 양 Choir Song	나 의 기도 (창세기 28 장대)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찬 송 Hymn	주 기일하시네	말 씀 Message	✦ 복종 가운데 주를 믿는 것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찬 송 Hymn	그리스도인의 시명 (히 9:24)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폐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파송의 찬양 Celebration	아바미 찬양단
		폐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 표가 있는 순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예배 (오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수요 단비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기 도 이장경 권사(다음주 소경옥 권사)	· 성 경 사무엘상 12:20-25
· 말 씀 혹암 속의 기도(시편 88:9-18)	· 말 씀 사무엘의 고별사
· 설교자 김은성 목사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예 배 봉 헌 당 담 (Usher team)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금 주	다 음 주	봉 헌 위 원	구분	기 도 위 원
1부	교 역 자	교 역 자	교역자	1부	인 도 자
2부	최창수 장로	김하동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기희 최금님	2부	도명락 장로
3부	김하동 장로	임재용 장로	김경자 김은혜 신정화 신하옥 최양숙 이경희	3부	권병수 장로

이런 때에 소소한 복사 **폭풍 가운데 주를 믿는 것** 마가복음 4:35-41

우리가 생각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기적, 곧 폭풍이 칠것임이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섰는데 그곳 어귀였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를 위하여 메뚜기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후 그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4:38)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경제적인 비방, 곧, 진리로 취업의 막막함, 젊은 양육과 노후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차 있습니다. 때때로 부끄러움도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배신처럼 느껴질 때가, 내 삶이 절망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변화할까 합니까?

첫째, 폭풍의 시작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히려** **반디** **저죽은** **건실기**(막 4:35)과 앞 장에서 제자들은 **은혜**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든 강함을 **반디** 될것처럼 이유는 **건실기**가(막 4:35)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실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로 히려 **반디**고 **영성**하는 것을 경계하고 합니다. **건실기** 할것처럼 대가 **부**를 잃을 때라는 하나가 시작하는가라는 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의 **목적**을 감지 하십시오.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기 시작하는가? 제자들은 **성**의 **현상**이 나타나 **고**인 시작합니다. **제**들은 때때로 **부**의 **순종**이 **고**인 공경하는 뿌리나타는 사실을 의도하여 폭풍을 하려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계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명백한 폭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도하여 합니다.

둘째, 폭풍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흐르는 이 거대한 폭풍의 참된 주인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세 가지 진리가 우리의 견고한 신성 객역을 되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폭풍들을 정복하셨다**. 성경의 기록은 그분 무덤과 조상 회개와 아담, 구제적인 시간과 배의 기원, 바깥에서는 사탄에게서 세밀하게 묘사된 14세기 폭풍들의 적과 그 신성한 증언자들이다. 본문은 “그들” 자체를, “그러나 바깥에 개과 악을 그는 새삼한 모사는 다시 갠새 파도 속까지 침전 있었던 사람만이 남고 계시는 기독교이다.” 총일 기적학을 최초로 기록한 자의 이름은 이시경 장로인데 속해 이름을 따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답습자? 39절의 **“바람이 그치고 야후 잔잔하여지더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역사의 한층에서 폭풍을 단번에 제압하신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임을 증명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의 거대한 눈앞에 폭풍을 다스리셨다**, 지체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꾸짖으신 것은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를 피조물로 간직 질서를 회복해 일러라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는 창조주가 지금 나처럼 태어난 채로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풍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폭풍 속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야마를 **“요보보다 큰 야”(막 12:24)**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지 때론 바바에 버려진 우리들, 기어, 아무런 속도 보지도 않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무무무친 폭풍 속으로 거기로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영히 강하게 할 죄의 형벌의 폭풍을 십자가 위에서 겪고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에 탄들만 다시 주님을 다룬다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배, 복음을 호령하는 우리 주님의 배에 탄 사람들만 아니라,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배를 타고 온 것까지 가만히 보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한 편입니다 우리 배에 탄들만 믿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은 깨닫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음이 참초주님이냐 나의 주권이지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친 물결과 내 배를 흔들며 뒤트는 내 마음과 그 순간, 내 심을 끌어잡고 흔들고 가는 배는 무슨 배입니까? 알고 흔들고 가는 배를 흔들며 가는 배의 무기로 쓰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과정이냐 복음을 부정하는 경향의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느냐, 바람 끌며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승리의 배를 타려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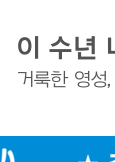
설교 노트

신인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듬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비방자로 박해자로 목행져었습니다. 그는 스스
를 죄인 중의 죄人和 고백할 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갈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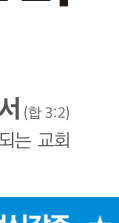
그는 눈앞의 논리적으로도 틀린 것이요, 무신론적으로도 틀린, 그 후미에 숨겨진 문제를 분석하고 그 논리적 오류는 논리적으로도 철저히 파헤쳐 버렸습니다. 비록 그는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된 지점에서 훗날 루이스를 기독교 신앙을 가장 훌륭하게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모든 반대와 어려움에도 결국 하나님께로 회개를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깨달음을 얻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칼라비언의 전통적인 의인화 의도는 결국 요세미의 계곡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목숨을 잃은 자의 영혼의 행로를 오히려 더럽힌 구원의 길을 잃은 것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과 언약하며라도 당신을 그들 역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삼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만 3주)
거룩한 양성, 따뜻한 인격, 인격과 심이 변화되는 교회

왕성상반


왕동교회


영아부터 여름성경학교 (7월 3-5일) ★ 주제: 하나님의 깊은 진전갑주 ★ 표어: 믿음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진전갑주







하나님의 진전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Christlike Disciples)를 세우 =

2026년 삼암동교회 교회학교
SPRING 청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유치부

다윗처럼
7.24(금)~26(주일)

소년부

예수행진: His Story
8.3(월)~5(수)

청년부

순간의 주: Never Lost
8.13(목)~15(토)

유년부

다윗처럼
7.24(금)~26(주일)

청소년부

내 앞길을 찾아라
7.30(월)~8.1(토)



[illegible]

マルコによる福音書 4:35-41

嵐の中を主を信じることに

私たちの人生は、自分の力で何でもかき立てた巨大な危機、すなわち嵐のうねりです。ガリラヤ湖の上では、独断の片断である弟子たちでさえ、大きな波の中で揺蕩する方々に救いの光線に遭遇しました。彼らは「聖霊の中心」、「**父よ、わたしのために祈り死んでください**」(マルコ4:38)と、驚いておられるイエスを賛美します。今日、私たちの中に経済的な貧乏や、健康、信頼の行き詰まり、子育てでも老後の不安など、重いしるしの確信に自分いかにあてられているかというところで、いつか叫びだせるように眠りにあるのかどうかによって状況は、自分自身の運命は見つけられてよくも悪くもあらわれるときがある。このように、人生の最も暗い夜、巨大な嵐を前にして、私たちは一体何を信じ、どのように反応すべきでしょうか。

第一に、嵐の原因が何であるか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文を見ても、イエス様自身が「**向こう岸へ渡ろう**」(マルコ4:36)と先頭に立って、弟子たちだけを連れて行きました。弟子たちが恐ろしい突如に遭った本質的な理由は、逆説的ですが「イエスキリストの言葉に従ったから」です。私たちの人生にも、神様の御心であると確信して従順の歩みを進めたにもかかわらず、かえって事態に巻き込まれてしまうという経験がよくあります。苦難の前には常に、「自分にどんな罪があったか神様が打たれたのか」といった疑念はかならず罪咎の罪意識に陥らなくてはならず、岸辺で神様の言葉を理論として取り入れて後、弟子たちは嵐の現場であつた海へ滴り注がれたように、主に向き合って、私たちの従順がまた一瞥に堅固を失うだろう、意図のない嵐を許されません。正しい神学軌道を走っている時にも激しい嵐は訪れるという事実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第二に、嵐の主が誰であることを知り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の人生を根柢から揺るがすこの巨大な嵐の風配の支配者は、まさにイエス・キリストです。本文を通して見出す3つの発見が、私たちの嵐の嵐の信仰告白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第一に、**イエス様は歴史の中で実際に嵐を鎮められた方**です。聖書の記録は、誰かが作った教訓的な物語ではなく、具体的な時間と船の位置、枕として物事を描き留めてくれた1世紀の目撃者たちの感動的で生きた証言です。本文「その夕日の方」記録とその中で被写とした、1世紀の船描写は、当時の航路の安全に直接に関与した文才が「我々を記録」すること。奇跡の物語として「われ、自分の自決の個性と経緯の中に神様を閉じ込めたいではありません。38節の「**イエスよ、舟事もなかったようになつた**」という記録は、実在する歴史的現場の場面を一瞬にして制作された「嵐の中」が、歴史の支配者であることを雄辯に物語っています。第二に、**イエス様は神の大偉大な力を嵐を治められました**。荒れ狂う嵐に向かって「**沈まれ、静まれ**」(マルコ4:39)と叫びつけたのは、有名な手段ではなく、万物の創造主として、造物物を造る創造の秩序に立ち、厳格にお命になったのです。宇宙を造られた方が、今、私たちに乗りこえてくることを赦してください。第三に、**嵐は神の愛であるイエス様は、私たちを勇気づけて「嵐に大なる嵐」の中に入りました**。イエス様は自ら「**嵐に大なる嵐をもつ**」(マタイ12:41)と言われました。方舟の物語のように海に投げ込まれた三子と七男は、何の罪もない主は、ただ私たちを助けたために、十字架受ける「神の義」が明らかにし導かれた道へ、善人としての身を授けられました。私たちが永遠に負うべき罪と刑罰の嵐を、十字架の上で背負って引き受けられたのです。

最後に、私たちの乗った船に同乗である主の身、よく因縁信頼して歩まなければならないままです。人生の激しい嵐を恐れず、嵐を呼びかけられる宇宙万物の支配者である神様に歩める。聖なる畏敬の心を回復していくこと。真の畏敬の心が臨むと、世帯ごとくのものである堅固な平安が、私たちの嵐への端を下らずはずです。次に、にあることを、順調を振り起こし、人生の中で積極的に生きてください。1.主導権である、私の救い主であることを、顔で同座することをしたいだけです。荒れ狂う嵐が人を運搬するための武器がまさしくこの瞬間、「私の人生を最後まで守っておられる方」であり「主」と誓ひ白し、その信仰を信託して送り出してください。私の人生の支配者であり、嵐を鎮められる方の力を完全に信託することで、崖へ落ちたとしても決して転落することなく、ついに勝利の歌を歌うすべての聖徒の皆さんとなることが十分に祝福いたします。

(召引) 김은석(Kevin Jin) 목사

风暴中信靠主

马可福音 4:35-41

我们的人生中，总会遇到凭己力无法抗拒的巨大危机——如同风暴袭来。即使在加利利海上身经百战的渔夫门徒们，也遭遇了从未见过的狂风巨浪。他们在深深的绝望中，埋怨正在睡觉的耶稣：“**夫子！我们丧命，你不顾吗？**”（可 4:38）。今天，我们中间也有人被因在生活的重压下——经济拮据、前途迷茫、就业无门、子女教育艰难、晚年不安——这些沉重的担子压得喘不过气。即使我们恳切呼求，主却似乎沉睡沉默，仿佛我们的生命被他彻底忽略。在人生最黑暗的夜晚，面对巨大的风暴，我们究竟该信靠什么，又该如何回应？

第一，我们应当明白风暴的起因。经文记载，耶稣亲自说：“**我们渡到那边去吧**”（可 4:35），并走在前面，门徒是顺服跟随的。门徒遭遇可怕风暴，其根本原因，是神矛盾，竟因为“顺服了耶稣的话”。在我们的生活中，也常经历这样的事：明明确信是神的旨意，迈出顺服的脚步，结果生活反而更加纷乱、更加纠结。每当患难来临，不要陷入“我犯了什么罪，以致神惩罚我”这种肤浅的因果报应的罪恶感。正如主在岸边用话教导门徒后，又将他们带入了风暴——海面上，风暴时也允许风暴临到，为要让我们顺服的生命扎根更深、更坚固。我们必须得住住，即使走在正确的信仰道路上，猛烈的风暴依然会袭来。

第二，我们必明白风暴的主是谁。把我整个人生都定夺的大风暴，真正的主宰正是耶稣基督。愿我们从经文中发现这三个真理，成为我们坚定的信仰告白。**第一，耶稣在历史中真实地平静了风暴。**圣经的记载不是任何人编造的寓言故事，而是有具体时间、船只位置、甚至“枕头”等细节——这些都是第一世纪目击者们鲜活而真实的记载。经文中“当那天晚上”、“在船尾上”、“枕着枕头睡觉”等细腻描写，只有当时亲身在浪风中的人才能留下。你是否曾将神视为神话，把神局囿在自己狭隘的理性和经验里？38节“**风就止住，大大地平静了**”的记录，雄辩地表明：在真实的历史现场瞬间制服风暴的耶稣，正是历史的主宰。**第二，耶稣以创造主的大能掌管风暴。**他斥责狂风，向海说：“**住了吧！静了吧！**”（可 4:39）这不是魔术，而是创造主向被造万物的秩序发出威严的命令。当谨记，创造宇宙的主宰，如今正与我同在一艘船上。**第三，风暴的主人耶稣，为拯救我们，亲自进入更大的风暴。**耶稣曾自称自己为“**比约拿更大的一位**”（太 12:41）。因为与罪已被抛入海中的约拿不同，耶稣毫无瑕疵、毫无罪愆的主，为了救我们，甘愿将自己全然投入十字架上的“神的震怒”的可怕风暴中。他独自走在十字架上，承受了我们本该永远承担犯罪与刑罚的暴风。

最后，我们应当更加坚定地信靠与我们同船的主。不要害怕天上狂暴的风浪，而要恢复对那斥责我们的宇宙主宰——神的圣洁敬畏。当真正的敬畏临到，世界无法夺去我们的平安，就不要在风暴中抛下了承认。同时，要唤醒我们里面沉睡的“信心”，在生活中积极运用它。不要只停留在头脑上承认主是创造主，是我的救主。就在那狂风巨浪把我整个人生彻底撼动的瞬间，要开口宣告：“那一直保守我生命直到最后的，是主！”并将这信心当作生命的支撑。愿各位全然信靠那管理我们人生、平定风浪的平安之主，主！我们在这患难绝处绝不坠落，最终唱出得胜的凯歌。阿们。

(강근) 김윤성(Kevin Jin) 목사

Trusting the Lord Amidst the Storm

Mark 4:35-41

In our lives, we encounter formidable crises—the storms that seem beyond our capacity to endure. Even the seasoned fishermen among the disciples, accustomed to the Sea of Galilee, were confronted by a megaton-scale tempest they had never witnessed before. In their profound despair, they cried out to Jesus, who was asleep, accusing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Mark 4:38). Today, many of us find ourselves confined by the heavy burdens of life—financial crises, uncertainty regarding our careers, anxieties over raising children, or fears about our future. There are moments when, despite our earnest pleas, the Lord appears to be in a deep slumber, and our lives seem utterly overlooked. In the darkest night of the soul, facing the violent winds of life, in whom must we trust, and how should we respond?

First, we must discern the true cause of the storm. The text notes that Jesus himself commanded,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Mark 4:35), and the disciples obeyed. Paradoxically, the essential reason the disciples encountered this terrifying gale was precisely because they had obeyed the Lord's word. We, too, often experience situations where our faithful steps of obedience to what we believe is God's will seem to lead only to greater entanglement and obstruction. Do not fall into the trap of superficial retribution, asking, "What sin have I committed to deserve this divine judgment?" Just as Jesus taught the crowds on the shore before leading His disciples into the practical field of the sea, the Lord occasionally permits storms so that our obedience may take deeper and more resolute root. We must realize that fierce storms can arise even when we are faithfully following the trajectory of a righteous faith.

Second, we must recognize the identity of the Lord of the storm. Jesus Christ is the true Sovereign who governs the storms that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lives. We must firmly hold to three truths discovered in this passage: **A. Jesus truly stilled the storm in history.** This biblical account is not a mere parable but a vivid, firsthand testimony of 1st-century witnesses, complete with specific details of time, location, and even the presence of a cushion. These minute descriptions reflect the accounts of someone present in the midst of the raging waves. Do not relegate miracles to mere myth, confining the Almighty God within the narrow limits of human reason and experience. The record that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Mark 4:39) serves as an eloquent testament that Jesus is the Master of history who subdued the storm on the spot. **B. Jesus governs the storm with the immense power of the Creator.** His command, **"Peace, be still"** (Mark 4:39), was not a feat of magic but the authoritative mandate of the Creator over the created order. We must remember that the One who fashioned the universe is in the same boat with us: **C. Jesus, the Master of the storm, entered into a greater tempest to save us.** He identified Himself as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Matt. 12:41). Unlike Jonah, who was cast into the sea for his own disobedience, the sinless Jesus willingly cast Himself into the terrifying storm of "God's wrath"—the Cross—to redeem us. He took upon Himself, in His own body, the entirety of the storm of sin and punishment that we were eternally destined to bear.

Finally, we must live by trusting more deeply in the Lord who is in the boat with us. Do not fear the tempestuous winds of the world; instead, recover a holy reverence for God, the Sovereign of all creation who commands the storms. When true awe of God takes hold, an immovable peace—where the world cannot take away—will drop anchor in our souls. Furthermore, awaken the "faith" dormant within you and actively employ it in your life. Do not be content with mere intellectual assent to His Lordship. In the very moment the storms of life shake your existence, declare with your lips, "The One who holds my life to the very end is the Lord!" and use that faith as your weapon. By fully trusting in the Prince of Peace, the Sovereign of our lives who stills the storm, may we never plummet even at the edge of the precipice, but instead sing the song of victory.

(강) 김은성 (Kevin Jin) 목사